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Tag: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1:6)

착한 일이란?

어른의 말에 순종하고, 도덕적이며 바른 일이라는 뜻이다.

첫 번째 착한 일은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누가 어른인가?

과 선배, 교수님, 학원강사, 직장 상사, 부모님, 목사님 <하나님>

(개역과 개역개정판만 ‘착한 일’로 번역, 나머지는 ‘선한 일’로 번역)

그러나 착하다는 말의 뉘앙스에는 배려심이 깊다는 뜻도 있다. 배려심이 깊어서
순전한 호감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자발적으로 실천에 옮기
는 것을 말한다.

착하다는 말은 순진하다는 말과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순진하다는 말에는 약간은 어리고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도 포함되어 있고, 쉽
게 속임 당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 (순진은 금물. 누구에게든 순진하게 비
치지 말라.)

그러나 착하다는 말에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심이나 보상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선한 일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착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색한
번역이긴 하다. (그러나 그 뜻을 전파하는데는 선한 일보다 더 적절함)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중
에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 복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분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동참하신다는 말이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고, 바울은 그 사실에 매
우 고무되어 있었다.

‘너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아무튼, 빌립보교회가 스스로의 결단으로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축
발되어서 하나님께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구약성경(왕하5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에 관한 이야
기가 나온다. 나아만은 왕에게 큰 신임을 얻고 있었다.

엘리사는 예언자였는 고로 마침내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로 인해 엘리사 또한 아람을 적대시하고 경계하고 있었다. (당시 엘리사는
실제로서 이스라엘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절에 나아만 장군은 심한 문둥병에 걸려 있었다. 이는 나라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군대를 통솔해야 할 군대 장관이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온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이 아이는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총명하고 진실하며 신실하였을 것이다. 나아만의 아내는 이 아이와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나 보다. 이 아이는 주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아이는 착한 아이였다. 비록 적군의 군대장관이고, 자기를 사로잡아 팔아버린 자들에게서 이 아이를 샀지만, 그녀는 자기를 이 집으로 팔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만약 다른 집에 팔렸으면 어땠을까? 게다가 우연치고는 절묘하게 군대 장관의 아내를 섬기는 일을 맡았지 않는가? 얼마든지 더 험악할 수 있는데, 불행 중 다행스럽게 잘 풀린 셈이다.

항상 우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사모님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다.(대기업의 이혼 소송은 흔한 이야기다.) 남편이 바람나서 가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불륜녀가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의심하고 있는가 보다. 위자료로 어마 어마한 금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의 전쟁 수준이다. (내 생각에는 이혼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러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나아만 아내의 몸종은 오히려 나아만의 병을 걱정한다. 참 착한 여자 아이다. 참 신기하게도, 이 아이의 말을 나아만 아내는 진실하게 들었다. 이 아이가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기로서니,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의외로 고관들 중에는 순전한 사람들도 많다. 나아만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곧장 왕에게 가서 전후사정을 아뢰고 출장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자 왕은 대뜸 그렇다면 나도 도와야지 하면서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쓴다. 내가 아끼는 군대 장관을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 주도록 하시오...

편지를 받아 본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나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들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줄 알라 하니라

그러면서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 당시 옷을 찢는 행위는 가장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행위다. (요새는 맨손으로 옷을 찢기 매우 힘들다)

엘리사는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청했다.

왕은 그렇지, 엘리사에게 보내면 되겠다 하고 급히 그를 엘리사에게 가도록 하였다.

나아만은 일단 여기에서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지가 올 것이지, 나더러 찾아 나서란다.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사하게 안수기도 할 줄 알았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최종 목적이 병에서 낫는 것이니 기분을 꺾 누르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엘리사에게 갈 때는 말들과 병거들을 대동하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다분히 저자의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다. 병거들을 대동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심기가 뒤틀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차하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어디 감히 군대 장관을 오라 가라...)

그러자 엘리사는 그를 심하게 박대하였다.

박대한 엘리사에게도 약간의 뒤틀린 심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담대함을 놓치지 않았다. 아무리 살기가 등등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군사가 있었다.

사환 계하시가 나와서 누구시오?

나는 이러 저러한 사람 나아만시오. 잠시 기다리시오.

선지자님 드디어 나아만이 왔습니다. 사소한 일상을 지내던 엘리사는,

오, 그래? 저기 그러믄,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해라.

네, 저기 나아만님, 선지자께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시는데요?

뭐야? 요단강에 가라고? 오다가 건넜던 그 강?

뭐 이렇게 다 있어. 나는 그가 나를 정중히 자기 집안에 모셔 들이고, 나에게 진하고 거대하게 안수기도해서 이 병을 낫게할 줄 알았더니, 얼굴도 비치지 않고 이렇게 나를 문전박대할 수 있느냐?

내 고향에는 요단강 보다 더 크고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고작 요단강, 오다 보니 졸졸 흐르는 강이던데, 그 물에 내 몸을 씻으라고?

하면서 분기탱천하여 돌아갔다.

가는 도중에 하인이 말했다. 장군님, 다른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으셨겠어요? 아, 그냥 가서 씻으라는 건데, 뭐 어려울 거 있나요?

나아만도 분이 좀 가라 았고, 자기도 말 등에 앉아서 아무런 성과 없이 투덜 투덜 가는 꼴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던 중에, 시종의 하는 말이 도움이 되었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불치병 신세로서 달리 방도는 없고, 옳다 네 말이 옳다. 요단강에 가서 씻자 하고 일곱 번 씻었더니 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베풀어진 것이다.

착하신 하나님은 착한 병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병까지 얻어놓고 안 착한 사람도 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안 착한 사람이 있다.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가 착한지 악한지 알 수 있다.

북한 아나운서 리춘희, 김여정동지의 담화를 보면 이들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우선 말투에서부터 듣는이를 적대하는 말투다.

병에서 나온 나아만은 크게 감동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는 내가 하

나눔을 섬기겠다고 신앙고백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한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나아만 아내의 여종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늦추셨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는 사실 기적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인간 존재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한다.

한반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올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반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었던 적은 한시도 없었다.

한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6.25 사변이 끝나고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괴롭혔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하나님은 남한을 도와 주셨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하나님은 그 때 그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반면 북한에게는 항상 패배를 선물 해 주셨다. 그래도 그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근근이 견디는 것을 보면 이 민족의 끈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추운 날, 그들은 여전히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착한 태도가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정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 사소한 걱정에서 큰 걱정에 이르기까지 문제들도 다양하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착한 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나아만 아내의 몸종의 기도를 생각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보다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기발한 지혜를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한다. 자신의 능력, 노력, 지식, 기발한 지혜에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심지어 자신의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무산 될 것을 믿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전환되어야 함을 믿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사됨을 믿어야 한다.

물론 기적만 바라보면서 노력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게을리 하거나 지식을 구하거나 탐구하거나 지혜를 짜내는 것을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뿐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탐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신중하게 한걸음 한걸음, 결정적일 때는 과감하게, 순간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보살피신다. 아멘.